

3. “과거, 현재, 미래”라는 3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현재, 현재에 대한 현재, 미래에 대한 현재”가 있을 뿐이라는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대한 해석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란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과거의 일을 현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나”, “현재를 현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나”, “미래를 현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나”가 존재할 뿐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시간을 물리적 시간과 마음의 시간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시간이란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고, 과거는 이미 사라져버려서 없기 때문에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마음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가 언제나 현재 속에 함께 한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3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현재, 현재에 대한 현재, 미래에 대한 현재”가 있을 뿐이라는 말은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물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의 시간이다.

4. 시간을 주제로 다룬 노래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시간관과 세계관을 설명

이로한 – 변하지 않아 (Feat. HAON, CHANMO)

=====

돈 많이 벌고 나서도 많이 벌고 나서도
많이 벌고 나서도 난 변하지 않아
돈이 줄어들어도 돈이 줄어들어도
돈이 줄어들어도 난 변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을 잃어도 나는 변하지 않아
세상이 다 무너져도 세상이 물에 잠겨도
세상이 너무 바뀌어도 난 변하지 않아
거리엔 내 노래가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부른 노래가
이런 내 꼴에 연예인이 된 것만 같아
알아볼까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봐
'TV보다 잘 생겼다'라는 말 듣고 자신감이 더 생겼다가
거울을 보고 아닌 것도 같다가

뭔들 어때하며 기분 좋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서 씹쓸한 입질만
어느새 나이 열아홉
꿈꾸던 세상에 눈 뜨니 벌써 다 왔다고
그치만 난 여전히 컵라면을 먹고 햇반을 사먹고
지하에 살고 있는 소년이라고
친구들한테 진짜 고마워
관두려 했던 난 니들의 칭찬에서도 많이 배워
그래서 이걸 다 갚을 때까지는
꼭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돈 많이 벌고 나서도 많이 벌고 나서도
많이 벌고 나서도 난 변하지 않아
돈이 줄어들어도 돈이 줄어들어도
돈이 줄어들어도 난 변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을 잃어도 나는 변하지 않아
세상이 다 무너져도 세상이 물에 잠겨도
세상이 너무 바뀌어도 난 변하지 않아
야 이 멍청한 이로한 몇 번이나 말해
만물은 변하기 마련 나도 뭐 다를 것 없고
우릴 괴롭히던 개도 이젠 기억 잘 안 나고
우릴 이용해먹은 개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
사진도 빛이 바래 답아도 SD카드 안에
영겁의 시간 아래 잠깐 동안 살기에
지금을 지금이라 부른 지금도
항상 죽여줄 것만 같던 그날의 리듬도
전부 변해버렸나 아니 변한 건 나인가
아, 다 이뤘나 혹은 다 잃어버렸나
여긴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거지여도 과연 우린 친구일까
변하지마 편하지 마 떠나지마 뺨하지마
섞이지마 그러지 말아줘
변하지 난 편하지 난 떠나지 난 뺨하지 난

섞이지 난 어리지 난
변하는 게 많아 그런듯해 로한아
그러나 형도 되뇌려 해 난 변하지 않아
좋은 차도 결국 고철로 변하지 말아야
허나 차 속 나의 추억들 절대 변하지 않아
뻥 센 삶 속, 거 절대 안 변한 거 하나
음악, 가족, 친구들에 대한 영원히 불탈 사랑
돈과 친구란 건 때론 통수 치고 나를 떠나
근데 -, 미움은 무로 변해도 사랑은 남아
남들이 우와 하는 그런 일들을 매년 해냈을 때도
난 일관하려 노력했어 늘 지킨 내 태도로
매사 감사해하며,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액수는 달라져도 오래 플레이가 될
음악을 만들자 지켜 긍정의 마음
긍정을 가르쳐준 두 명은 도끼와 더과
영원할 것 같은 그림은 때론 변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돈 많이 벌고 나서도 많이 벌고 나서도
많이 벌고 나서도 난 변하지 않아
돈이 줄어들어도 돈이 줄어들어도
돈이 줄어들어도 난 변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을 잃어도 나는 변하지 않아
세상이 다 무너져도 세상이 물에 잠겨도
세상이 너무 바뀌어도 난 변하지 않아

=====

이로한의 "변하지 않아"에서는 3명의 사람이 나온다. 한 사람은 지금의 마음가짐을 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이로한), 어차피 만물은 변하는 것이고 나 또한 나를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창모)이 있다. 여기에서 이로한과 창모는 비슷해 보이지만 창모는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것을 인정한 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만은 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말한다. 그에 반해 이로한은 내 주변환경이 변화한다고 하여도 지금의 나를 존재

하게 하였던 기대에 부응하는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다짐이다. 창모는 과거는 과거로 있고, 이로한은 과거로 인하여 내가 있다는 것이다. 하온은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순리라고 생각한다. 하온에게 시간이란 '언제나 변한다'라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로한에게 시간이란 '현재의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이고, 창모에게 시간이란 현재의 나도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하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추억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않는다.

6. 직선적 시간관과 순환적 시간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설명

직선적 시간관이란 시간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시간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탁자 위에 유리컵이 있다. 그런데 실수로 그 유리컵을 떨어뜨렸고 컵은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유리컵이 탁자 위에 놓여있는 상태를 A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B라고 한다면 컵의 상태는 항상 A에서 B로만 향하지, 절대 B에서 A로 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시간관이 직선적 시간관이다. 반면, 순환적 시간관은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해를 봤고, 내일도 아침에도 해를 볼 것이며, 그 다음 날에도 아침에 해를 볼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직선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오늘 아침에 뜨는 해와 내일 아침에 뜨는 해는 다르지 않나요?"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오늘과 엄청나게 다른 내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관점이 순환적 시간관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동양과 서양의 시간관에서 나타난다. 서양의 시간관에서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삶을 지나 사후세계에서 시간의 변화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동양의 시간관에서 모든 것은 발전한다. 그리고 퇴보한다. 그것의 반복이다. 직선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에게 순환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제는 뽀뽀, 오늘은 핸드폰, 내일은 스마트폰 인건 인정한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해졌는가?" 결국 우리는 무수한 시간을 반복해왔고 또 다시 무수한 시간을 반복할 뿐이라는 것이 순환적 시간관이다.

7. memento mori, carpe diem, amor fati라는 3개의 계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한 분석 설명

- memento mori(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이다. 고대 로마에서 유래되었

다는 설이 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신과 같이 대접해주는 개선식에서 같은 마차에 노예를 장군과 같이 탑승하게 한다. 그리고 이 노예는 개선식 동안 끊임없이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말을 속삭였다.

- Carpe diem(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즐겨라'라는 뜻이다. 오늘을 즐긴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즐기라는 말에 가깝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행복을 유예시키지 마라'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매세지가 카르페 디엠이다. 카르페 디엠이란 말이 언뜻 보면 쾌락주의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이자'에 좀 더 가깝다.

- Amor fati(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신의 근본 사유라고 인정한 영원 회귀 사상의 마지막 결론이 아모르 파티다. 니체는 '힘에의 의지'는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을 통하여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열망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며, 허무의 권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넘어서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만 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필연적인 것(ex. 죽음)에 굴복하여 '힘에의 의지'를 부정하여 허무의 권태에 빠진다면,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이는 허무주의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인 것이 설혹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 '힘에의 의지'를 무참히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긍정해야 한다. 이것이 아모르 파티이다.